

이슈브리프 394호
(2022.10. 6)

신흥안보 위기와 유럽의 우경화

제394호

오일석 안보전략연구실 · 조은정 한반도전략연구실



국문초록

최근 유럽의 변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우경화와 포퓰리즘, 내셔널리즘이 부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도좌파의 성향을 보이고 있던 유럽 정치가 급격하게 우경화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와 에너지 위기 등 일련의 신홍안보 이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무솔리니가 파시즘 정당을 창당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인 2022년, 지난 달 실시된 이탈리아 조기 총선(9.25)에서 신나치즘에 뿌리를 둔 극우 정당 '이탈리아 형제들'이 이끄는 우파 연합이 승리하여 '제2의 무솔리니'라 불리는 조르자 멜라니의 총리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다. 유럽의 우경화 경향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럽의 에너지 위기 또한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경기 침체, 공급망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파동 등 신홍안보 위기로 인하여 대중영합주의에 급급한 극우세력의 집권이 이어지고 배타적 민족주의가 횡행한다면 "하나의 유럽(one Europe)"으로 대표되는 집단안보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유럽 내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외부적으로 유럽의 우경화는 그동안 유럽이 추구하였던 규범의 매개자, 갈등의 중재자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를 높이고 있다. 세계대전에서 보다시피 역사적으로 위기의 시대마다 포퓰리즘 정치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우경화를 중요한 사회적 지표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은 유럽이 우경화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신홍안보 부문에서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우경화, 극우주의, 이탈리아 형제들, 파시즘, 포퓰리즘,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파동, 배타적 민족주의

2022년 9월 유럽 극우주의 정당들의 집권

최근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안보 불안은 물론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고물가에 따른 공포와 위기감이 국민들 사이에서 고조되면서 극우주의 정당들이 집권하는 사례가 등장하였다. 2022년 9월 25일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 신나치즘에 뿌리를 둔 극우 정당 ‘이탈리아 형제들’이 이끄는 우파 연합이 승리하였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우파 성향이 강한 정부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총선에서도 극우 성향의 스웨덴민주당이 포함된 우파연합이 승리하면서 정권 교체에 성공하였다(2022. 9. 11). 스웨덴민주당은 주요 공약으로 “이주민 제로” 및 “외국인 범죄자 추방”을 내걸어 역대급 지지를 획득하였다. 한편 프랑스에서도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국민전선(RN)의 마린 르펜(Marine Le Pen)이 41.46%를 획득하여 2017년 대선 결선투표 당시 마크롱 대통령과의 32%에 달하는 격차를 17%로 좁히는 등 극우세력이 대약진하였다.

2022년 들어 유럽에서 극우 정당의 집권이나 세력 확대는 유로존의 금융 불안, 유럽연합(EU)의 통합과 개혁의 정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안보 불안, 물가상승과 경제 불안정 등의 문제에 대해 기성 정치가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자국중심주의와 애국주의로 둔갑한 파시즘과 포퓰리즘이 횡행한 결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팬데믹으로 위축된 경제로 반이민 정서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안보적 우려와 생활고가 가중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코로나19와 유럽의 우경화

파시즘이나 포퓰리즘에 기초한 유럽 극우 정당들은 경제공황, 제2

차 세계대전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하여 급격하게 그 세력을 확장하였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도 유럽 극우 정당의 세력 확장에 어느 정도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극우 정당들이 주장하였던 불법 이민 차단과 국경 봉쇄 강화가 지지를 받은 것이다. 유럽 극우 정당들은 유럽연합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비난을 퍼부으면서 대중적 인기를 얻었고 내셔널리즘과 인종주의를 강조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공적 의료체계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주장하면서도 이민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이민, 지구화 그리고 다문화가 사회의 통합을 막고 코로나19를 전파하는 진정한 원인이라고 비난하면서 국경 봉쇄와 이민 배척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희생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초기 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연합의 연대와 협력 강화는 유럽 내 극우주의 세력의 영향력을 반감시키는 결과도 가져왔다. 코로나19 보건안보 위기 상황은 극우주의 세력이 주장하는 인종주의, 혐오, 난민 배척 등에 대한 관심 저하나 지지 축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경제 불안과 연계되면서 극우주의 정당들의 영향력은 다시 증대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탈리아 형제들’이다. 결국 코로나19는 민주주의 원칙을 반감시키고 전체주의적 혹은 권위주의적 사회에 대한 수용의 자양분을 공급한 결과 유럽이 우경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추구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위기와 극우 정당의 집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안보 불안, 에너지 위기와 물가 상승은 유럽의 우경화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식량 가격과 더불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서방 주요국들의 대러 경제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즈프롬이 2022년 9월 2일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유럽에의 천연가스 공급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유럽의 가스 가격은 30% 상승하였고, 유럽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유로화 가치는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0.99달러 아래로 하락하였다.

러시아의 유럽 가스공급 재개 불확실성으로 2022년 겨울 전례없는 에너지 파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과 주요국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평가전망도 엇갈리며 당분간 에너지 위기를 둘러싼 유럽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탈리아 형제들’을 이끌면서 이번 총선 승리로 차기 총리가 유력한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조차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야기된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에 대해 공동 대응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발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유럽이 가을로 접어들고 러시아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서 정치적 불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 체코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 정부의 무능을 이유로 불신임 투표가 실시되었고, 불신임 투표가 부결되자 프라하에서 약 7만 명이 모여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2022.9.3). 이들은 정부에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적 중립을 유지하라고 요구함은 물론, 러시아 등 천연가스 공급국과 독자적으로 별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였다.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화하면서 가중된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혼란을 조장하고 이는 또다시 극우 정당 세력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2022년 겨울 이후 유럽에서 우파 포퓰리즘 정당의 득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우경화 저지를 위한 기성정치의 노력

한편, 에너지 위기로 인한 유럽의 우경화를 저지하기 위해 유럽의 주요국들은 각종 에너지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등은 2022년 9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시민 부담 감소를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하였다. 독일은 천연가스 부가가치세 인하, 저소득자 및 통근자 지원금 제공,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 이익에 대한 과세 등을 발표하였고, 오스트리아는 전력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스웨덴과 핀란드는 전력 생산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다. 프랑스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가스 가격을 동결하고 전기료 인상 폭을 제한하는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유럽 국가들의 신속한 대응은 에너지 위기로 고조되고 있는 사회, 정치적 불안을 누그러뜨리고 우경화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켜 우경화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가스 공급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데, 지난 달에만 2개의 새로운 독립적 가스공급라인을 개설하였다. 대표적으로 폴란드는 노르웨이에서 생산된 가스를 덴마크를 거쳐 폴란드로 공급하는 발틱 파이프(Baltic Pipe)를 통해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폴란드와 덴마크 사이의 약 9백 km에 달하는 해저 구간에 가스관을 설치하고 양국 영토 내 기존 천연가스 망을 정비하는 내용의 발틱 파이프 건설은 ‘유럽공동이익 프로젝트(Project of Common Interest: PCI)’로 지정

되어 있다. 또한 불가리아에서 그리스를 잇는 가스관 IGB가 본격 가동에 돌입하여 그리스 연안으로 수입되는 아제르바이잔 가스 중 연간 최대 30억m³를 불가리아 등 유럽 동남부 지역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80%가량 의존하던 불가리아를 비롯한 발칸반도 국가들은 가스 수입원 다변화를 이룩하게 되었다.

시사점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럽의 에너지 위기 또한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럽의 우경화는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스페인 외교부 장관의 발언처럼 포퓰리즘은 항상 “불확실한 시기에 득세”했으며, 단편적이고 일시적 대응으로 인해 언제나 “재앙”으로 끝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었다. 코로나19와 에너지 위기 같은 신홍안보 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은 극우주의 세력 확대를 넘어 파시즘의 부활에 대한 두려움을 확산시키고 있다. 파시즘에 기초한 극우주의 우파 연합 정부의 탄생은 기성 정치집단의 코로나19와 에너지 위기 등 신홍안보 정책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유럽의 우경화는 기성 정치권의 무능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기존 정치권이 자초한 부분도 있다. 기성 정치권이 현상황을 타개하는데 해결안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경기침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문제 등이 초래한 신홍안보 위기가 대중영합주의에 급급한 극우세력의 집권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유럽에서 배타적 민족주의가 횡행한다면 “하나의 유럽”이라는 이상은 내부로부터 균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신흥안보 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은 해소되기보다는 증대되고 있으므로 우경화는 이탈리아에서 그치지 않고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탈리아에서 우파 연합정부의 탄생은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반난민 정서와 민생고는 이탈리아만이 아니라 스페인과 그리스 등 남부 유럽은 물론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과 스웨덴, 덴마크 등의 북유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안”으로서 극우 포퓰리즘의 득세는 당분간 대중민주주의 시대에 신흥안보 위기를 맞아 시대적 요청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유럽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극우세력이 과연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대안세력으로서 현재 맞은 신흥안보 위기를 타개하는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낙관적 시각에서 보자면, 2차대전 당시와의 차이점은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집단안보체제가 지역 내에서 다면적으로 작동 중이므로 전쟁으로 치닫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회의적 시각에서 보자면, 독일과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를 막지 못했던 과거 역사를 돌이켜볼 때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의 역할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역부족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경화에 대한 사회적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 국제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우경화는 자국중심주의, 각자도생, 진영화와 블록화를 더욱 가속화시켜 국제 질서의 불안정성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유럽이 우경화된다면 그동안 유럽이 추구하였던 규범의 매개자, 갈등의 중재자로서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미중 경쟁시대에 신흥안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사입장국가인 유럽과의 협력이 필수적

인 만큼 유럽의 우경화를 지연 및 방지하기 위한 다자적 노력이 필요하다. 유럽이 우경화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한국은 다양한 방면에서 신흥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령 코로나19 이후의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정보의 공유와 방역 협력 및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외 천연가스 탐사 개발은 물론 재생에너지 개발에 관한 공동 협력을 확대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제품에 대한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협력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